태풍 할퀸 피해…도로 침수·정전 '복구'

공공시설 36건·사유시설 17건 등 53건 시설 피해

벼쓰러짐 746ha·과수낙과 439ha 등 15개 시군 피해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 전남지역은 농작물 1200여 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여수와 광양 등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도로침수와 정전이 잇따랐다.

전남도가 3일 오전 8시 현재 집계한 태풍 마이삭 피해현황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벼와 과수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우려 지역인 순천과 곡성, 목포, 무안, 광양지역의 66세대 128명을 사전 대피시켰으며 현재는 모두 귀가했다.

공공시설 36건, 사유시설 17건 등 53건의 시설피해가 났다.

벼쓰러짐 746 ha와 과수낙과 439h 등 농작물 피해 1213ha가 발생했다.

벼 쓰러짐은 고흥 450ha, 나주 120ha, 보성 119ha 등 15개 시군에서 피해가 났다.

과수피해는 배 낙과 372ha가 가장 컸으며 지역별로는 나주 200ha, 고흥 68ha, 신안 55ha, 영암 50ha, 보성 29ha, 순천 20ha 등 9개 시군이다.

나주와 곡성에서 각각 1건씩 주택 파손 피해가 있었고, 건물외벽 탈락 등 12건의 피해도 발생했다.

여수 1888가구, 광양 488가구 등 총 3300가구가 정정피해를 입었으나 현재 복구가 완료됐다.

여수 6건, 광양 4건의 도로가 저지대 해안 및 이면도로 배수불량으로 침수됐으며 이날 현재 물을 모두 뺐다.

3일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지나간 전남 나주시 금천면의 친환경쌀 재배단지. 밤새 불어 닥친 강풍에 벼가 힘없이 쓰러져 있다.

다만, 수산증양식시설은 피해는 조사중이다.

전남도는 피해신고를 받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에 총력대응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까지 태풍 바비에 비해서는 피해 규모가 작은 것 같다"면서 "아직 수산증양식시설 피해는 집계되지 않아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전두환 재판서 허위진술 의혹' 5·18단체, 항공여단장 위증죄 고발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 광주 방문·헬기사격 부인

5·18민주화운동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 형사재판서 허위 진술한 의혹을 받는 1980년 당시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을 위증죄로 고발한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씨를 오는 7일 광주지검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5·18단체는 송 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 전 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씨는 당시 법정에서 "5·18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밝혔다. "헬기에 무장한 사실이 없다"며 헬기 사격 여부도 부인했다.

하지만, 1980년 5월 작성된 군 기록에는 송 씨가 광주를 다녀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 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 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17:45에 귀대'라고 기록돼 있다. 1980년 5월 군의 헬기 사격 또한 국방부 헬기사격 특조위 등 국가기관 조사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245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탄흔 대부분을 헬기에서 쏜 것으로 감정했다.

5·18단체는 이 같은 군 기록과 국가기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송 씨를 위증죄로 고발한다. 고발인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다.

5·18단체는 7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앞에서 고발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김미희 기자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날고 있는 모습

'편의점 직원들의 발빠른 대처' 기프트카드 사기 잇따라 예방

사기단, 50대 여성 딸 사칭

편의점 직원들의 발빠른 신고로 수백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사기(메신저피싱) 피해를 잇따라 막았다.

3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2시55분께 남구 한 지역의 편의점에서 직원 A(27·여)씨는 50대 여성이 75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직원 A씨는 50대 여성이 편의점에서 흔치 않은 수십만원대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는 데다 일련번호까지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행동을 멈추게 했다.

이어 최근 경찰이 배부한 보이스·메신저 피싱 예방 홍보물과 이 여성의 행동을 비교한 뒤 기프트카드 메신저 사기에 당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50대 여성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뒤 사기단이 딸을 사칭해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일련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정승호 기자

심야시간대 목포 여관서 불…4명 연기흡입

3일 오전 0시26분께 전남 목포시 남교동의 3층 규모 여관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숙박객 등 4명이 연기를 흡입,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출소 보름 만에 또 상가털이 5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상가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4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슈퍼마켓에서 담배 1보루와 현금 15만 원 등 총 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상가 내실에 침입,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비슷한 범죄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보름여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도 절도 행각을 하다 수 차례 구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탐문수사 등을 벌여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화금융사기 송금책 60대, 은행 직원 눈썰미에 덜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일당에게 송금하려던 60대가 은행 직원의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당에게 건넨 혐의(사기)로 김모(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A(62)씨의 돈을 건네받아 가로챈 3000만 원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해 '수거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씨는 "기존 대출을 보다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전환해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말에 속아 김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돈을 받아챙긴 김씨는 곧바로 동구 한 은행 자동화현금출납기(ATM)에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범행은 1인당 하루 1차례 최대 송금가능 금액이 100만 원인 탓에 덜미가 잡혔다.

은행 직원은 김씨가 오랜 시간 ATM 창구에 머물며 수차례 돈을 송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이미 송금한 1800만 원의 거래를 중지시키고 수중에 있던 1200만 원을 모두 되찾았다.

"교도소 가고 싶다" 강도행각 40대 경찰에 붙잡혀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강도미수 혐의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고양시의 한 식당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채무와 이혼 등 생활이 힘들어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